

2008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④	5	⑤	6	③	7	④	8	①
9	④	10	⑤	11	①	12	①	13	②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①	21	②	22	②	23	①	24	③
25	④	26	①	27	③	28	②	29	④	30	⑤	31	④	32	④
33	②	34	④	35	②	36	③	37	④	38	②	39	⑤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③	45	③	46	②	47	③	48	③
49	①	50	⑤												

해설

<1번> 이제 여러분은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사 : 지금 보시는 것은 전통 문양입니다. 우리의 고유 문양들은 골무, 주머니, 보자기, 옷감, 도자기, 떡살, 기와 등 옛 조상들의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은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한 것뿐 아니라, 기하학적인 것도 많아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통 문양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상들의 소망과 행복관, 윤리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학생 : 선생님, 저 문양은 뭐죠? 꽃 같은데요?

해설사 : 예, 맞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점에서 다산(多産)을 의미합니다. 또 연꽃의 뿌리는 굽고 옆으로 뻗어가며 마디가 많은데, 그 마디에서 잎자루와 꽃줄기가 자라나 잎과 꽃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연꽃은 화합과 화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금방 알아보겠지요?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지닌 사슴입니다. 사슴을 한자에서는 ‘녹(鹿)’으로 표기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이것과 관리의 봉급을 뜻하는 한자 ‘녹(祿)’이 같은 음이어서 사슴은 종종 관직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슴은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학생 : 저 문양은 나비 같네요.

해설사 : 그래요. ‘나비’ 문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비는 꽃 속을 날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곤충입니다. 그러기에 나비는 기쁨이나 부부 간의 금슬을 상징합니다. ‘나비’ 문양 옆에 있는 것은 ‘호랑이’ 문양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위엄이 있어 병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또 꿈에 호랑이를 보면 관운이 트일 징조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의 문양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양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1.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화재 해설사는 ‘연꽃’은 ‘다산(多産)’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나비’는 ‘기쁨이나 부부 간의 금슬’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고 할 때에는 ‘ㄱ’의 ‘연꽃’과 ‘ㄷ’의 ‘나비’ 문양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답풀이] ④ ‘ㄴ’은 ‘사슴’ 문양인데, 사슴은 관직을 상징하고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져 왔다고 하

였다. ‘ㄹ’은 ‘호랑이’ 문양인데, 호랑이는 병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졌고, 꿈에 호랑이를 보면 관운이 트일 징조라고 하였다.

<2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의 원님이 고을에 사는 남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내가 실컷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련하겠다. 다만 너희들이 마실 술만은 각자가 한 병씩 들고 와야 한다.”

고을에 살던 김 서방은 고민을 했습니다. 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술 살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그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술 대신에 물을 담아 가면 되겠다.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아닌가? 엄청나게 큰 술독에 물 한 병쯤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

잔칫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잔치가 열리는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술이 담긴 호리병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저마다 가져온 술을 마당 가운데에 놓여 있는 커다란 독에다 부었습니다. 김 서방도 호리병에 담아 간 물을 독에 붓고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의 술잔에 술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원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원님을 칭송하며 일제히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던 것입니다.

2.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에 담긴 주제와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려 준 이야기는 원님이 주선한 고을 잔치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 하나쯤 술이 아니라 물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3번> 이번에는 ‘불면증’에 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잠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베타파, 세타파 등이 감지됩니다. 이 중 베타파는 불안해하거나 긴장하거나 복잡한 두뇌 활동을 할 때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세타파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거나 잠이 드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파를 조사해 보면 세타파보다 베타파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를 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파의 특징을 이용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뉴로피드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에게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면 베타파는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뉴로피드백’에서 불면증 환자에게 잠을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권하는 방법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면 베타파는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떠올리는 것’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하여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오답풀이] ‘이어질 단어를 계속 생각하는 것(②)’, ‘추억의 장면들을 떠올린다는 것’(③), ‘다양한 상품들을 차례로 떠올리는 것(④)’, ‘목장에 들어오는 양의 수를 세는 것(⑤)’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4~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먼저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 김 PD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문화연대 최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송국 PD(남) :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요의 주간 인기 순위를 발표하는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발표하면 가요에 대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려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연대 대표(여) :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요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위제를 도입하면 대중음악은 방송사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특정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여) : 두 분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신데요. 의견을 보충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PD님 말씀하시죠.

방송국 PD(남) : 물론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실시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위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요 프로그램 시청률 하락과 함께 인터넷과 MP3의 대중화가 겹치면서 가요계의 불황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하면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가요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연대 대표(여) :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순위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가 벌이는 토론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국 PD는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연대 대표는 순위제를 도입하면 대중음악은 방송사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특정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두 토론자의 쟁점은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이다.

5. [출제의도]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화연대 대표의 첫 번째 말을 보면 방송국 PD가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요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고, 두 번째 말에서는 방송국 PD가 말한 내용 중에서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 PD의 두 번째 말을 보면

문화연대 대표의 견해 중에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견해 중에서 일부는 인정하면서 말을 시작하지만, 순위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6. [출제의도] 일상적인 소재의 특징을 바탕으로 적절한 연상을 통해 글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휴대 전화의 기능에 착안하여 학교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용을 적절하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 중 카메라 기능은 일상에서 손쉽게 자신의 주변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③은 이러한 기능을 ‘학교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글을 쓰는 것과 연관을 지어 연상하지 않고, 단순히 ‘카메라’라는 사물에 주목하여 ‘축제에 필요한 소품’을 잘 준비하자는 식으로 연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통화 기능’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 기능이므로, 이러한 기능에 착안하여 ‘진행 요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알람 기능’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시간이 되었을 때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므로, ‘계획된 프로그램 시간을 지키는 것’에 관한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일정 관리 기능’은 예정된 일정을 메모하는 기능이므로, ‘사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일정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은 휴대 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므로, ‘축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내용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소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청소년들의 소비 환경과 소비 실태를 고찰’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문화’와 관련 깊은 전략이다. ② ‘청소년들의 돈에 관한 가치관’과 ‘청소년들의 용돈 사용처에 관한 통계’와 관련한 자료는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문화’와 관련 깊은 자료이다. ③ ‘청소년들의 충동적 소비’와 관련한 내용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 ⑤ ‘전략 수립’과 ‘내용 선정’에 있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조직’으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된 내용을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름을 쏟는 손’과 ‘기름을 닦는 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희망의 태양’이 비유적 표현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표현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아름다운 꽃’은 비유적 표현이고, ‘바다 살리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는 봉사 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조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③ ‘지옥’은 비유적 표현이고, ‘안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부주의는 우리에게 불행을 줍니다.’라는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봉사 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바다를 더럽힌 사람도 있지만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오늘도 그들은 바닷가 구석구석을 닦고 있습니다.’는 봉사 활동을 암시적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⑤ ‘사랑이 많았습니다.’는 비유적 표현이고, 마지막 문장은 봉사 활동을 암시적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피해 중 ‘Ⅱ-2-가’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가상 세계에서 모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상 세계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II-2-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글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른 고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무관심하게’는 ‘무신경하게’로 바꿔 써야 문맥에 어울린다.

[오답풀이] ㉔ ㉕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마치 짐짝처럼 운송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내용이므로 주체와의 호응을 고려하거나 내용의 자연스런 흐름을 고려할 때, ‘운송된다는’으로 고쳐야 한다. ㉓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지하철은 운송 기능이 뛰어나지만, 빠른 운송만을 추구하다보니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이므로, ㉔은 이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와/과’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여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철수는 잠잔다.’와 ‘영수는 잠잔다.’의 두 문장이 ‘와/과’에 의해 결합된 문장이고, 나머지 항목의 문장은 문장을 나눌 수 없는 용례이다.

12. [출제의도]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장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굴’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 따위를 파냄’ 또는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제시된 <보기>에는 ‘발굴’이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의 용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㉔ ‘발각’은 ‘숨겼던 일이 드러남’의 의미로,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의 ‘비밀 조직’과 연관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㉓ ‘발달’은 ‘진보하여 완전한 지경에 이름’의 의미로, 세 번째 문장 ‘과학기술’과 연관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㉔ ‘발족’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따위가 새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함’의 의미로, 네 번째 문장의 ‘감시단’과 연관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㉕ ‘발명’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냄’의 의미로, 첫 문장의 ‘나침반과 종이’와 연관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13~18] 시가 복합

<출전> (가) 이용악, ‘다리 위에서’
(나) 박재삼, ‘어떤 귀로’
(다) 작자 미상, ‘잠노래’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함께 묶을 수 있는 작품을 파악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나)는 화자가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어렸을 적 화자의 어머니는 새벽 일찍 장사를 나가서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그런 힘든 삶을 이겨내면서 아이들을 키우셨던 어머니의 사랑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며, 그러기에 화자는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다. 고달픈 삶의 애환이 잔잔하게 그려지면서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빛나고 있다. (다)는 여성 화자가 ‘잠’을 청자로 설정하여 바느질을 밤늦도록 해야 함에도 잠의 방해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민요이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여성의 힘겨운 삶이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㉑ (다)에만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나타나 있다. ㉓ (나)의 ‘서릿길’은 가을을 나타내지만, (다)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㉔ (가)에는 과거 ‘아버지’의 부재가 나타나 있지만, (나), (다)의 경우에는 부재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㉕ (다)만 구체적인 청자를 ‘잠’으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는 원래는 매우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잠으로 인해 눈이 몽롱해지고 있는 정황을 노래한 것으로,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과

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㉑ 어른이 되어 국숫집을 찾아가던 중, 다리 위에서 국숫집 아이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㉔ ‘아버지의 제삿날’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에서 그 날 이외의 다른 날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㉓ 앞뒤의 내용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셨다가 밤에 귀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촉촉한 밤 이슬에 젖으며’는 그러한 정황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㉔ ‘잠아’와 ‘가라’를 반복하면서 대상인 ‘잠’에게 자신을 멀리 떠나가라고 하여 대상을 거부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에 사용된 독특한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㉔는 달빛이라는 눈으로 볼 수만 있을 뿐,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대상을 ‘털어 놓는다’고 하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대상을 변용하여 형상화하였다.

[오답풀이] ㉔는 ‘별 많은 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고, ㉕는 곡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㉔는 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㉕는 월명동창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모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았다.

16. [출제의도] 시의 전개 과정에서 시어가 가지는 역할과 공간적 의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㉑은 화자가 국숫집을 찾아가면서 국숫집 아이였을 때를 회상하는 공간이다. <보기>의 ‘버드나무 밑’도 이와 유사한 공간이다.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는 것에서 현재 화자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앞부분에서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버드나무 밑에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계집애, 이야기’를 기다리다가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로 보아 ‘버드나무 밑’이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은빛 바다’는 어머니의 상여가 지나 간 긴 언덕길을 볼 때 엿보이는 곳일 뿐, 회상의 공간은 아니다. ㉔ ‘조약돌’은 첫사랑의 시작과 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일 뿐, 회상의 공간은 아니다. ㉓ ‘노을’은 화자가 강가에서 보낸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줄 뿐, 회상의 공간은 아니다. ㉔ ‘누런 모래둔’은 화자가 서 있던 강가의 공간일 뿐, 회상의 공간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시적 구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장르로 적절하게 변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작품의 흐름을 참조할 때, 3연의 상황은 어머니가 이른 새벽에 장사를 나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후, 제멋대로 뒹굴어진 채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3연은 어머니의 힘든 삶의 모습을 ‘별빛’과 ‘달빛’을 활용하여 그리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짓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3연에서 희망을 암시하는 조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18. [출제의도] 시의 흐름에 맞게, 조건에 맞추어 생략된 시구를 창작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는 ‘숨다’와 ‘솟아오다’라는 동사를 활용하여 ‘잠’을 생명이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활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눈썹 속에 숨었는가’와 ‘눈 알로 솟아온가’를 짝이 되게 표현하여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㉔, ㉓ 대구법은 사용하고 있으나 활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㉔, ㉕ 활유법은 사용하고 있으나, 대구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19~21] 인문 제재

<출전> 김종철, ‘간디의 물레’

19. [출제의도] 글에 내재한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글은 글쓰이가 소개한 간디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요약한 글이다. 세 개의 형식 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문단은 인도의 현실에 대한 간디의 인식을 서술하였고, 둘째 문단은 간디의 대처 방식을 서술하였으며, 셋째 문단은 간디의 목표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중 ㉔는 산업 문명의 영향력이 어디에 바탕을 두었는가를 묻는 것으로 다섯째 문단에서 물레와 대비된 ‘거대 기계’를 찾을 수 있다. ㉕는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채택한 비폭력주의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첫째 문단에서 ‘실천적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마지막 문단은 간디의 목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소농촌 정치 공동체의 특징인 ‘행복의 추구’와 ‘자기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에서 ㉕는 ‘자기완성’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군사력’은 서양 제국주의가 인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힘이 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산업 문명과 관련하여서만 서술하였으므로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동적인’은 첫째 문단에서 글쓰이가 부정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풍요로운 생활’은 글쓰이가 파악한 간디의 사상과 거리가 있으므로 또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㉑ ‘물레’는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서 산업 문명의 핵심 생산 수단인 ‘거대 기계’에 대비되는 것이다. 문맥으로 볼 때, 간디는 근대 산업 문명이 물질적 이득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대 기계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간디는 자신이 제시한 물레와 ‘거대 기계’의 차이는 생산 수단이 민중에게 있는가 아닌가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레’의 상징적 의미는 민중 소유의 생산 수단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는 간디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③ 지문에서 ‘노동 계급’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물레는 이 ‘노동 계급’이 산업 문명에 대항하고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벗어나는 데에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⑤ ‘거대 기계’가 지닌 상징적 의미에 해당한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뜻을 바탕으로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글에서라면 ‘노예로 타락’이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글에서는 ‘노예로 타락’의 앞에 ‘금전과 물질의’라는 수식어가 있으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금전과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2~25] 현대 소설

<출전> 조정래, ‘어떤 술거의 죽음’

2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그’는 성주의 명령에 따라 성주의 영정을 그린다. ‘그’는 성주의 외모와 풍기는 분위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정을 성주에게 바친다. 그러자 성주는 그 영정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그’는 자신의 그림은 매우 사실적인 그림이라며 반발한다. 영정을 둘러싼 ‘그’와 성주의 갈등은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사건이 전개될수록 고조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해학적인 성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영정을 중심으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병렬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⑤ ‘그’는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였다.

23. [출제의도]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와 유사한 시가 작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하들은 성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성주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진 영정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왜곡하여 평가하였다. ㉑에는 이러한 신하들의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

하는 ‘그’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옛시조를 변형한 ㉒도 ‘옥’의 실체를 알면서도 ‘돌’이라고 왜곡하는 인물에 대해 분노의 심정을 드러내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② ‘임’을 믿기 어렵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③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평생 꿈을 이룰 일만 하기보다는 노는 것이 좋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람들이 자신을 몰락시키려 하는 상황을 노래하며 죽기는 서럽지 않지만 임을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까이 하려 하다가, 자신의 상황이 바뀌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풍자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구절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㉓에서 ‘모두의 말이 다 옳습니다.’고 한 것은 신하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어지는 당경만은 진실을 말했을 것이라는 말은 자신이 그린 영정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성주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그’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정을 성주가 흠물스럽다고 여겨 자신의 모습과 다르다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깨달으라고 한 것이므로 성주에 대한 존경심이 언행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당경’은 성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당경을 보면 성주가 억지를 부리는 태도가 잘못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굽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2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영정에 대해 신하들은 성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왜곡하여 평하고 있다. 따라서 신하들은 처음부터 영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6~28] 언어 제재

<출전> 노명완 외, ‘속담에 대하여’

26. [출제의도] 주어진 지문의 정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속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속담의 지역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㉑은 적절하지 않다. 첫째 문단까지는 속담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둘째 문단부터 셋째 문단에서는 속담이 지닌 일반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서는 속담의 독특한 표현 형식과 속담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속담의 일반적인 기능과 함께 속담이 지닌 현대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지시된 구절에 해당하는 속담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㉒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부드럽게 하거나 거칠게 말하는 것에 따라 그 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신중하고 예의를 갖추서 해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㉑에 해당한다. ㉓는 ‘돈을 벌 때는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지만 쓸 때에는 가치 있고 알맞은 곳에 쓴다.’는 뜻으로 돈의 벌이와 사용에 관한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㉒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㉔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것은 보통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속담이다. ㉕는 ‘강자(强者)끼리 싸우는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자(弱者)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속담이다.

28.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는 기존의 속담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대

에 따라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생명력을 얻으면 변화된 속담으로 자리 잡는다고도 하였다. ‘자료2’는 이와 관련 깊다. ‘뽕 먹고 알 먹고’라는 기존의 속담이 ‘마당 쓸고 돈 줍고’라는 속담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기존의 속담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새로운 속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속담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은 넷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의 내용과, ③은 다섯째 문단의 내용과, ④와 ⑤는 셋째 문단의 내용과 관련된다.

[29~32] 고전 소설

<출전> 작가 미상, ‘심청전’

29. [출제의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있고, 선인들은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인당수 용왕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물이 되어 바다에 빠지는 심청의 모습을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②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전에 거친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 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심청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서사 구조의 각 단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 변화와 인과적 관계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즉, 심청이라는 주인공이 ‘현실계 → 환상계 → 현실계’로 이어서 등장하는 단일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 액자식 구성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1. [출제의도] 근원설화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심청은 눈 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음을 선택한다. 하지만 <보기>의 거타지는 제비뽑기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섬에 남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서해 용왕에게 거타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고, 이 글에서는 인당수 용왕에게 심청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를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② <보기>에서는 중으로 변신해 용왕의 자손들의 간을 빼먹는 늙은 여우가 등장하나, 이 글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요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⑤ <보기>에서는 거타지의 궁술(弓術)에, 이 글에서는 심청의 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출제의도] 상황에 적합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이다.

㉠은 풍랑을 만난 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설상가상’이 가장 적합한 한자어이다.

[오답풀이] ① ‘각주구검’은 ‘유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③ ‘좌충우돌’은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이나 함부로 맞닥뜨림.’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백년하청’은 ‘중국의 황허 강(黃河江)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33~35] 기술 제재(재구성한 글)

<출전> ‘과학동아(2007. 7.)’,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33.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을 보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우리나라가 온실 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을 보면, 태양광 발전은 시설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화력 발전과 비교한 설명은 없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을 보면, 고분자 태양 전지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기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접을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건물 벽 같은 곳에도 쉽게 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③ 셋째 문단 첫째 문장을 보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는 실리콘 태양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과학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2세대 태양 전지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리콘 태양 전지는 1세대 태양 전지를 뜻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식도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류는 P형 반도체의 전극에서 전구를 거쳐 N형 반도체의 전극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전구에서 N형 반도체의 전극 방향을 가리키는 ㉣가 적절하다.(참고적으로, ㉡는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다.)

[오답풀이] ① ㉠은 태양빛이 전지에 비치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A]의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내용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③ ㉢이 가리키는 부분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곳이다. 지문의 설명에 의하면, 태양빛의 에너지가 이 부분에 전달되면 전자와 정공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림에서는 접합면을 따라 두 입자가 붙어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 놓았으므로 두 가지 입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전기를 띤 입자 중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정공은 P형 반도체로 모인다고 했으므로 ㉡은 적절한 설명이다.

[36~39] 사회 제재

<출전>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36.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롤스는 국가가 최하위 소득 계층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입안·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③처럼 단순히 소득 형성 기회만 균등하게 준다면 최하위 소득 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 이는 롤스가 최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이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노직은 소득의 창출자는 사회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구성원들의 소득을 강제로 재분배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을 얻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득을 얻는 과정, 즉 소득 형성의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한 그 결과가 아무리 불균등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보기>에 적용해 보면, 명규와 덕주는 오아시스를 차지할 때 덕주가 가까운 오아시스를 차지하겠다고 제안하고 명규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한 상태다. 즉, 이미 덕주에게 소득 형성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덕주의 오아시스가 바닥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덕주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지 국가의 역할을 하는 상급자가 이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상길이가 물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적절하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 ② 상길이가 명규의 물을 어느 정도 덕주에게 옮겨야 하다는 결론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 ③ 명규와 덕주가 물을 균등하게 갖도록 옮겨야 한다는 결론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 ⑤ 명규와 덕주가 물을 균등하게 갖도록 옮겨야 한다는 결론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같은 단위의 재화라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한계효용이 달라져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빵이라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총효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소득의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유는, 저소득자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자의 한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39. [출제의도]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한자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는 ‘최하위 소득 계층에 소득을 이전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가(轉嫁)’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찍우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0~42] 희곡

<출전>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40.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온달의 유령이 나타나고,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중간 줄거리 이전은 ‘공주궁’을, 그 이후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41. [출제의도] 평론을 대사에 적용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전후의 문맥으로 볼 때, ㉞는 온달이 평양성에서 정치적 압투를 경험하며 느낀 심리적 부담감이나 회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온달은 공주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인물로 공주의 신변을 염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⑥는 공주를 위해 온달이 계속 적과 싸워 승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신을 위해 나는 싸웠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온달이 공주의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내가 명하는 것이니 잠시 벗어나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주는 공주라는 지위와 권위를 근거로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주의 요구에 대해 부장은 ‘군율이 산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규정을 내세워 공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공주와 부장은 모두 직설적으로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43~46] 예술 제재

<출전> 이성재, ‘재미 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43.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국악의 한 음역 안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12음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악과 서양 음악의 한 음역 안에 있는 음의 개수가 다르다고 진술한 ⑤는 잘못이다.

[오답풀이] ①, ②는 둘째 문단에서, ③은 셋째 문단에서, ④는 첫째 문단에서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간보에서 소리의 길이는 한 정간이 한 박이며, 정간 내의 율명의 위치나 가로획을 활용하여 한 박의 길이를 나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의 大는 한 박의 1/2 길이며, 林은 한 박의 2/3의 길이이다. 따라서 林과 大의 길이는 같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仲은 仲이 표기된 정간에서는 1/3박의 길이이고, 이어지는 정간(짧은 가로선이 그어진)에서는 1박 길이의 仲이 이어진 것이므로 1과 1/3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다음 정간이 비어있거나 가로획이 그어진 것은 음이 연장된다고 하였으므로 黃은 두 박이다. ④ 應과 姑는 한 정간을 차지하고 있다. ⑤ 정간보는 정간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 읽어 나가고, 정간 속의 율명은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고 하였다.

45. [출제의도]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추론하여 도식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음의 옥타브 변화를 기본 율명에 특정한 음악 부호를 활용하여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음의 옥타브가 높아지는 것은 기본 율명에 ㄷ를 하나씩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것은 ㄹ을 하나씩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적절하게 도식화한 것은 ㉢이라고 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문맥을 통하여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음악의 중요한 골격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간보는 음의 길이를 기록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음의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문장에서 음악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음의 세기와 길이를 들고 있고, 음의 세기는 선율의 장식적, 변화적 요인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③ 음이름을 설명하며 중국의 게이름과 대비하고 있으므로 음의 높이와 관련이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④ 음역은 옥타브에 해당하므로 음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다. ⑤ 배성은 옥타브가 낮아지는 데 사용하는 부호와 관련이 있다.

[47~50] 과학 제재

<출전> 이은희, ‘뇌 세포는 왜 재생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나?’

4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뇌의 신경 세포가 분열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세포가 방해 물질을 내어 분열과 재생을 가로막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러 내용이 뒤섞이지 않게 비디오테이프의 녹화 탭을 떼어 다른 내용이 녹화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은 신경 세포가 분열하여 회로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교세포가 방해 물질을 분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생략된 구절을 유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세포가 신경 세포의 분열을 막아 뇌 세포가 재생하지 않으면, 신경 세포 회로에 저장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득은 있지만 뇌 세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재생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5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다.

[오답풀이] ①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기준이 될 만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크기, 생김새 따위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모양이라는 뜻의 말이다. ④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